

### 華城 紙串里出土 金銅觀音像

李 浩 官

지난 六月七日 京畿道 華城郡 烏山邑 紙串里에서 出土된 遺物을 同人 文甲洙氏와 現地調査한 바 그 內容을 紹介하고자 한다.

京畿道 華城郡 烏山邑 紙串里 山二一九番地 崔昌南氏의 所有 林野에서 田地開墾을 하고자 附近에 所在한 墳墓三基를 移葬하고 그 附近을 整地 作業中 墳墓가 있던 後 便約 三m가량 되는 곳에서 發見하였다 하며 佛像發見地 一帶에서는 다른 遺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그 附近一帶에서는 볼 수 없는 一段의 雜石層이 있었고 처음 發見時 佛像을 덮고 있던 것으로 推定되는 土器(完全破損)가 나왔을 뿐이라 한다. 또한 佛像이 있었던 곳의 土色도 變質되어 있었다 한다.

出土地는 部落入口 道路邊에서 約 五〇m—六〇m 가량 되고 發見者의 住宅과는 一五m 되는 곳으로 이곳을 洗馬臺(史蹟第一四〇號)에서 흘러 내리오는 稜線下部地點이 되는 곳이다.

出土된 佛像의 形態는 觀音菩薩立像으로서 거의 完形에 가까우며 佛



頭에는 祇林寺乾漆 佛(寶物 第四一五號) 과 같은 寶冠을 덮고 있으며 寶冠에는 花紋과 冠帶가 뚜렷이 나타나 있으나 左便部分이 약간 破損되어 있다.

寶冠의 冠帶가 後

面에서는 뚜렷이 西쪽으로 突出되어 있고 寶冠에서 흘러내린 다른 冠帶는 全體가 四줄이며 그中 二줄은 佛像에 平行으로 되어 길게 늘어져 있다.

佛像의 相好는 몹시 溫和하고 가냘프게 되어 있으나 新羅 및 百濟佛과 같이 全體의 으로 보아 圓滿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顏面의 鍍金이 全體의 으로 酸化되어 靑鏡이甚하며 鼻梁이 약간 破損되어 있다. 寶冠 밑 部分의 寶髮은 이마 위에서부터 곱게 빗어 寶冠 밑으로 넘겨져 있고 一部 寶髮은 兩耳 中間까지 늘어져 있다. 兩耳 亦是 肩部까지 길게 늘어져 있으며 목에는 三道가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서 발등까지 自然스럽게 흘러 덮고 있으나 下部에 내려올수록 衣褶이 많이 겹쳐져 있다. 右足의 半이 破損되어 있으며 또한 兩手의 끝이 亦是 약간 破損되어 있다.

手印은 通印으로 新羅時代부터 傳來되어오는 正常的인 形態이며 佛像背面에는 光背를 附着시켰는 것으로 推測되는 突起가 上下 二個 있다.

또한 佛像背面에 까지도 衣紋이 나타나 있으며 胸部의 寫實的인 表現이 매우 興味롭다. 特別히 寶髮은 長髮을 한데 묶어 뒤로 넘긴 것이 注目된다. 그리고 佛身은 足部까지 속이 비어있다.

佛像後面과 前面一部分가 오랜歲月을 地下에 埋沒되어 있었던關係로 鍍金이 酸化되어 靑鏡이甚하게 덮고 있으나 全體의 으로 보아 佛像의 製作手法과 形態가 秀麗하며 製作年代도 麗初까지로 推定할 수 있는 優作에屬하는 雅淡한 佛像이다.

佛像實測值

全高一九·五cm 頭高四·八cm 肩幅四·三cm 胸幅三cm